



이춘만(194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흉상〉,
2003년, 브론즈(Bronze),
92×55×94cm, 명동대성당, 서울

성화 해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형상화한 이 성상은 명동대성당에 자리 잡고 있다. 한복에 상투를 한 김 신부님은 어떠한 그리스도교 상징물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진리를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통하여 김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강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천상의 김 신부님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언제나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제1독서 2역대 24,18-22

화답송 시편 31(30),3ㄷ-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6ㄱ)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

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2독서 로마 5,1-5

복음환호송 마태 5,10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 10,17-22

영성체송 마태 16,2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신앙인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는(1821-1846) 하느님을 ‘임자’로 불렀다. 그는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의 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에 난 보람이 없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쳤다. 1821년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난 성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1836년 12월 마카오로 떠난다.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품에 오른다. 김대건 신부는 그해 10월 12일 귀국하여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846년 6월 5일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받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다음날인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그는 사목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고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했다. 김대건 신부는 사형 집행 전 큰 소리로 마지막 설교를 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설교가 끝난 후 관리들은 김 신부의 웃웃을 벗기고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흰 회를 발랐다. 무릎을 꿇리고 밧줄 한 가닥으로 머리칼을 동여매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다. 그때 김대건 신부는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던 기백과 용기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라고 하신다.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배척을 받고,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와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왜 신앙인은 박해를 당하는가? 세속에서 그리스

도의 진리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따라서 죄와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하고 두려워한다. 어둠의 행위가 빛속에서 낱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순교는 본래 증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며 동시에 순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옛날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 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훌륭한 순교이다. 어쩌면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다.

“순교자 김대건 사제와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나를 깨어 있게 하는 것



김희진 사비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일 주일에 한 번, 성당을 가는 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우선 하느님을 만나러 가니 기쁘고, 죄를 고백할 생각에 두렵고, 성체를 모실 생각에 떨리고, 축복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오른다. 주일에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행운(?)이 있는 나는 성당을 가면 가장 먼저 제대 위의 십자가를 찾는다. 어렸을 때는 미사 시간 동안 신부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부님이 멋있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강론이 좋으면 더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사를 드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관심은 신부님 위에 계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되었다.

나는 인권단체에서 일한다.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일하네” 혹은 “무서운 곳 아니야?” 이다.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니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나는 딱 맞는 직업을 찾은 셈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권리를 빼앗거나 지켜주지 못한 상황을 감시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도록 함께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하도록 설득하는 것. ‘사람’이 전부인, ‘이웃’이 전부인 그런 일이다. 그러다 보니 나의 매일매일은 기쁜 일보다는 마음 아프고 어렵고 무기력하게 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가족과 친지들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활기를 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솔직히 그들만 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힘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야 하는 나에게 가장 든든한 뺨은 바로 예수님이다. 지난 5년 동안 힘들어하는 나에게 “사비나, 힘들지. 우리 조금만 힘내자”라고 다독겨려주셨다. 그런데 요즘 내게 보이는 예수님은 아무 말썸이 없는 너무나 지친 모습이다. 자신의 주위사람들만 챙기고, 사람보다 돈과 명예 같은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귀를 막은 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지치신 것 같다. 예수님은 점점 말라서 갈비뼈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 손발에 박힌 못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사랑과 정의가 우선인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파견되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성체를 모신 우리는 예수님을 몸에 모시고다니는 게 아닌가! 오늘 미사시간에는 제대 위의 예수님이 어떤 말썸을 해주실까. “한 말썸만 하소서. 제가 끝나오리다.” 신부님·수녀님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쳐 그 일에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을 것이라 믿음은 나를 항상 깨어 있게 한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7

인간 배아의 냉동 보존은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

“냉동 보존은 인간 배아에 합당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냉동과 해동의 과정에서 많은 배아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아를 죽음이나 물리적 손상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인간의 존엄 18항>.

“[냉동] 배아들을 연구나 질병 치료를 위해 활용하지는 제안은 분명히 받아들이 수 없다. 이는 배아를 단순히 ‘생물자원’으로 다루고 배아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 19항>.

시험관 아기와 같은 체외 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난자를 채취하여 여러 배아를 만들고 즉각 자궁 이식이 되지 않는 배아를 냉동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배아가 죽거나 훼손되며, 사용되지 않는 배아는 ‘고아’로 남아서 실험도구로 사용될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냉동 배아의 처리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비윤리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배아를 ‘입양’하여 다른 부부가 출산하자는 제안도 다른 심리적, 법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는 “수많은 ‘냉동’ 배아의 운명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인간 배아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호소” 합니다.

소식

오늘(7월5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제3차 청년 연수 안내

- 때, 곳: 7월11일(토)~12일(일), 청주교구 연수원
- 강사: 강인숙(인천교구 가정사목부), 신상현 수사(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문의: 460-7623 생명운동본부 사무국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7월7일 이여구 마티아 신부(53세) 1950년, 납치
- 7월10일 정규량 레오 신부(70세) 1953년, 용산
- 7월1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1950년, 납치
- 7월12일 정욱진 토마스 데아퀴노 신부(79세) 1997년, 미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신대방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남교우 / 문의: 825-2314(7월5일까지)
-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임신부 추천서(접수된 서류 반환 안됨, 개별통보 후 면접)
- 주소: (우 156-848)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40

서울대교구 마천동성당 야간 관리인 모집

- 대상: 신체 건강한 남교우 / 문의: 406-1033, 430-7140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7월12일까지 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93-5번지

감사와 사랑 운동 2: 내 손이 필요할때 '도와줍니다.'

용산참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단식기도 현장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가족들을 위로하며 단식기도하는 사제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주민들도 부상을 당했다.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철거현장 참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은 십분 인정한다. 그러나 대치상황의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고라도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에서 또다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책임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용산참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특별히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정 정책에 있어 힘없고 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우선 살피야 하는 위정자들의 깊은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9. 6. 23.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 김윤희 주교

교구청 알림

전·의경 대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대상: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 받은 55세 이하 교우) / www.catholicpolice.or.kr
- 문의: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전대사를 받기 위한 1일 지방 성지순례

- 때, 곳: 7월19일(일) 오전 8시(전철 2·4호선 사당역에서 출발), 배론·묘재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성가책, 물준비) / 회비: 2만5천원(선착순 전화 접수)

제2회 가톨릭 유아 노랫말 공모전

- 내용: 청소년국 유아부는 가톨릭 영유아(만 1~5세)들이 가정과 기관, 본당에서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유아 노랫말을 공모함
- 대상: 서울대교구 내 교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본당 내 홍보 포스터 참조
- 접수: 7월5일(일)~8월5일(수) 우편, 홈페이지, E-mail 접수(신청서는 홈페이지 참조)
- 발표: 9월1일(화)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문의: 727-2110~1, 5(www.seoulcatkid.or.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7월 후원회 월례미사

-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때: 7월6일(월) 오전 10시2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921-5094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서울대교구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 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7. 21-24, (성소피정)	마산진동 가르멜수도원	010-3169-7416
까리따스 수녀회	7. 12, 10시-16시30분	방배동 수녀원	011-9742-2321
돈보스코 여자재속회(MDB)	7. 12, 11시-15시	살레시오3층(신길동)	011-797-3115
인보 성체 수녀회	7. 12, 13시30분	수유리 수녀원	011-380-5159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서울관구)	7. 12, 14시-18시30분	수녀회 본원 (명동성당 뒤)	3706-3233
티없으신 마리아성심 수녀회	7. 12, 13시30분	성산동 수녀원	016-835-4858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7. 12, 14시	부산 본원	582-4997

알림

성모다산대회 차 예절교육

· 7월중 직장인 평일반과 주말반 / 707-5658, 707-5500
· 때, 곳: 7월7일(화)부터,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주최)·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숙대 정문방향

성신아동청소년 교육상담소

· 내용: 학교생활 적응, 시험불안 및 진로상담
· 대상: 유아·초·중·고·대학생·학부모(전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 567-7685(www.sungshincc.co.kr)

예수살이 공동체 여름 배동교육(36기)

· 복음적 인생관 갖기, 소명의식을 위한 자아발견, 좌선 명상수련, 성사생활과 기도생활, 틈짜기, 소비자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 회비: 12만원
· 대상: 남녀 청년 교우 / www.jsari.com 참조
· 때, 곳: 36기 7월9일(목)-12일(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 문의: 3144-2144, 2442

가톨릭대학교 제10회 주니어영어캠프

· 내용: 2009 여름 제10회 주니어영어캠프, 초등 방과 후 영어교실 / 대상: 예비 초등학생-초등 6학년
· 주니어영어캠프: 7월24일(금)-8월20일(목)
· 방과후 과정(IEP): 매월4주 단위(접수: 전화·인터넷·방문) / 032)341-5411(http://cuk.epluscamp.com)
· 곳: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심교정)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개강

·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신착순 마감
· 회비: 한 학기 8만원(수도자·성직자 10% 할인)
· 주간: 9월-12월 둘째·넷째(수) 오후 2시-4시 30분 / 야간: 9월18일·25일, 10월9일·23일, 11월6일·20일, 12월18일 오후 7시30분-10시
· 곳: 서강대 이나시오관 소강당(개인컵 지참)
· 문의: 718-3896, 7 후원회(주·야간 중 택1)

제6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하계 교회음악캠프

· 대상: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단원 및 교회음악에 관심있는 분(회비: 15만원) /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간, 반주법, 합창지휘, 발성법 등
· 강사: 백남용 신부(교회음악대학 원장) 외 대학원 교수진 / 계좌: 우리은행 512-262452-13-101
· 때: 7월13일(월)-16일(목) 오후 1시30분-6시
· 곳: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393-2213-5
·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제17차 어린이 성령학교

· 대상: 초등3-6학년(지도: 전제덕 신부) / 866-6345
· 준비: 필기도구, 목주, 미사책, 개인물통 준비
· 회비: 2만원(교재·간식·중식), 부모참석 권장
· 계좌: 국민 404601-01-177300 김필남(예약접수)
· 때, 곳: 8월17일(월)-18일(화)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528, 6512, 504, 5535 환승후 조원동 사무소 하차) / 010-8332-7334, 010-6254-9549

말씀기도교육(3개월)

· 내용: 그리스도인, 신앙의 도우미,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장애들, 새삶의 시작, 신앙의 핵심, 말씀기도, 성령말씀모심실습 / 회비: 6만원(첫날접수-분납가능)
· 강사: 강혜경 수녀 / 010-9131-5826, 989-5826
· 때: 9월2일-11월25일 매주(수) 오전반 10시30분-12시30분, 오후반 7시30분-9시30분 중 선택
·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미아동(전철 4호선 미아역 4번 출구 KT 광복 전화국 뒤)

시립 보라매 청소년수련관(문의: 834-6411, 2)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참종문나, 모험영캠프, 부모교육) and Details (대상, 내용, 때, 곳, 문의).

어르신 성경 "은빛여정(예언과 지혜서)" 봉사자 교육

· 회비: 6만원(중식, 교재제공) / 사전접수 요망
· 때, 곳: 7월20일(월)·22일(수) 10시-16시, 가리따스 성서교육관(전철 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 010-9314-3037

성서학교 마태오복음 안내

· 매주 강의·미사·안수있음(강사: 김명희, 이해봉)
· 때, 곳: 매주(월)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1-778-0220, 011-399-3993 작은 예수회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젊은이 성소캠프

· 대상: 고등학생·대학생(남), 일반(남), 성소 관심 있는 분(회비: 4만원) / 문의: 010-9204-1262
· 때, 곳: 7월17일(금)-19일(일), 강원 하조대

모집

가톨릭 군중후원회 전산·관리직원 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 776-0457

작은예수회 요셉의 집 봉헌자 및 재활작업장

· 대상: 장애인 남자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분

한국 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수시)

· 대상: 지휘자,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관악기 / 문의: 011-256-3827 예술총감독

서울가톨릭간병인회남·녀간병인양성교육 및 모집

· 때, 곳: 7월14일(화)-16일(목)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520호(신착순 30명, 환불 안됨) / 928-7185
· 회비: 7만원 / 우리은행 1005-701-131505 (재)천주교

명동성당 로고스합창단 2009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성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교우 및 예비자 20-30대 / 문의: 011-9602-6964 현선아
· 오디션일 및 장소: 7월12일(일) 18시, 문화관 2층소성당

잠실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 통합교실 참여자 모집

· 내용: 자원봉사·장애교육, 장애체현, 장애청소년과의 통합 활동(내방, 전화접수)
· 때: 7월20일(월)-23일(목) 오전 9시30분-12시
· 문의: 423-7806, 7 이효주 사회복지사

미국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 성소자 모집

· 대상: 고졸이상, 18세-40세 미만의 미혼 여성
· 이념사회에서 함께 봉사할 수도 성소자를 찾음
· 이메일: lsohf@yahoo.com(www.holyfamilyrs.org)
· 문의: 1-301-947-1955 수련소, 1-301-236-4009 본원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성 음악에 관심있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교우 및 예비자(1980년 이후 출생자)
· 때, 곳: 7월12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문화관
· 준비: 자유곡(악보준비) 또는 가톨릭성가 중 1곡
· 문의: 010-4018-7586(www.catholic-choir.or.kr)

무지카사크라 2009년 신입단원 모집

· 1984년 창단하여 교회 다성음악 위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 www.musicasacra.or.kr
· 대상: 합창단 또는 성가대 경력자(전공자 포함) 중 비브라토없는 맑은 음색의 20세이상 45세미만의 교우(오디션: 7월11일(토) 15시, 가톨릭 교회음악대학원 내 1층) / 010-9580-7689 송원영

미사

성모자애보육원 후원회 미사(문의: 937-6900)

· 때, 곳: 7월6일(월) 14시, 성모자애보육원 경당 신리성지 후원자 미사
· 때, 곳: 7월9일(목) 10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미사: 김성태 신부) / 3789-1359, 041)363-1359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레미사, 성체조배

· 기도교육, 미사, 성체조배 / 문의: 773-3030
· 때, 곳: 7월9일(목) 14시, 가톨릭회관 3층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부모 1일 피정

· 대상: 고3, 수험생 부모와 희망자 / 3462-5959, 60
· 때, 곳: 7월8일(수) 10시, 우면동성당(주최)
· 10월까지 매월 둘째(수) 10시 미사와 피정 있음

치유와 은총의 미사 및 성시간 초대

· 때, 곳: 매월 둘째·넷째(목)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주최) / 문의: 2281-3236

서소문 순교성지 미사

· 8월8일(토)까지 성지미사 없음
· 7월20일(월) 성지 사무실 휴무 / 312-5220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과 함께 입대 자녀와 회원을 위한 미사 / 문의: 776-0457
· 때, 곳: 7월6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살레시오 관상 기도와 미사, 영성강좌, 연수

· 대상: 누구나(지도: 김보록 신부) / 848-9932, 011-711-9928
· 때, 곳: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 가리따스 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m 우측)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월레미사 및 미사(가정성화시도작)

· 주제: 도박중독 / 조현섭(도박중독 예방치유 센터)
· 때, 곳: 7월7일(화) 13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강당(회비없음) / 727-2071(www.ihome.or.kr)

서울대교구 다락방기도와 성모신심미사

· 미사: 오태순 신부(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7월1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꽃봉헌 및 스킵올라 봉헌식 있음)

안내

성령 선교 수녀회 피정 안내

·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한 개인 피정가능 / 문의: 741-4895 명륜동본원

살레시오 고민 전화상담

· 자녀며 가정 내 갈등, 고민 들어드립니다 / 841-8443
· 때: 매주(월-금) 10시-16시(공휴일 휴무)

무아의 집(유료 양로시설)

·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 운영 / 388-4442
· 위치: 경남 양산시 호계동 376번지 / 055)385-5838

치유예술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07-5544)

· 담당: 김 A. 클라라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개인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심상치료 / 010-9171-2583
· 곳: 수녀원(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제주 관광을 원하는 교우들에게

· 제주도의 관광 및 성지를 안내하고 차량·호텔·펜션·예약 가능함 /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늘푸른자활의집(거주형 치료공동체)

· 저소득층 알코올·도박·컴퓨터 중독 치료
·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 수도회 운영
· 문의: 031)953-3492(www.green2004.or.kr)

삼성산 성지미사 안내(문의: 875-2271)

· 부활 제2주일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매주 오전 11시 삼성산성지에서 미사봉헌 됨
· 월레미사는 계절에 관계없이 매월 21일 11시에 봉헌 됨

서초여성회관 무료 취업알선

· 내용: 구인·구직 상담 및 연계
· 대상: 취업 희망 여성, 여성인력이 필요한 업체
· 문의: 522-0291 (내선 238) 하정미 사회복지사

여대생 기숙사 안내

·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 곳: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성북구)
· 주최: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 문의: 911-7580(www.rcm1892.net)

뽀뽀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 샬트르 성마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 등 / 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교회단체 '알림' 게재 신청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Love in Action

2009 세계성령대회 준비위원회 전례찬양곡 | 성바오로 | 52·53분 | 1만5천 원(2CD)



한국에서 열린 세계성령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음반으로, 전 세계 성령기도회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을 담았다. 주님을 찬양하고 흠숭, 경배하는 노래를 통한 기도로서 교회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영혼의 복음성가(Amazing Grace)

이영화 독창 | 바오로딸 | 50분 | 1만2천 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친숙한 곡을 새롭게 편곡하여 만든 성가음반이다. 클래식결한 분위기에 대중적인 감각을 살렸으며, 테너 이영화의 애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시원하고 풍부한 가창력이 돋보인다.

나의 수호성인은?

고정욱·최용진 글 | 이경순 그림 | 바오로딸 | 184쪽 | 9천5백 원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나 이미 본명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기 성인에 대해 지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책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녀 성인 각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례명의 인물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를 위한 고해성사 길잡이

심흥보 지음 | 성바오로 | 64쪽 | 4천5백 원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 늘 같은 죄만 고백한다는 어린이, 고해성사 준비가 어렵다는 어린이들이 고해성사를 보다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죄를 고백하기 전의 과정인 성찰, 통회, 결심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예수님을 업은 크리스토포로

이현주 글·그림 | 바오로딸 | 168쪽 | 9천8백 원
 소아시아 리키아 지방에서 선교하던 중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오는 크리스토포로 성인의 전기다. 명랑만화 형식을 빌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성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순례의 길을 걷는 하느님 백성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16쪽 | 5천5백 원
 청년들을 위한 교리서 제3권으로, 가톨릭 교리의 핵심 내용을 청년 모임 등에서 서로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엮었다. 청년들의 신앙 쇄신과 영적 성장에 도움될 것이다.



간추린 성경 지도

자코모 페레고 지음 | 민남현 옮김 | 바오로딸 | 36쪽 | 4천 원
 2007년에 발행한 '성경의 세계와 지도'에서 간추린 지도 모음으로, 휴대하기 쉽게 꼭 필요한 지도만 실어 구원 역사의 중심 사건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구약과 신약에 관련된 29개의 지도와 11개의 그림, 소개말과 간략한 연대기가 들어 있다.



성령께 드리는 기도

베르나르다 카다비드 지음 | 강운자 옮김 | 바오로딸 | 88쪽 | 5천5백 원
 성령에 대한 아홉 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이에 따른 체험 이야기를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더욱 변화된 모습을 이루도록 초대하는 9일 기도이다.



토머스 머튼의 영적 일기

토머스 머튼 지음 | 오지영 옮김 | 바오로딸 | 548쪽 | 1만3천 원
 동양 심성을 지닌 작가로 아시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영성 작가 토머스 머튼의 책 가운데 아직 소개되지 않은 체험 이야기다. 깊은 영적 갈망으로 주님을 선택한 한 수도자의 내적 고뇌를 진솔하고 흥미진진하게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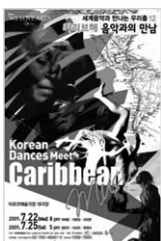


심자의 성 요한과 진리의 산길

토머스 머튼 지음 | 서한규 옮김 | 바오로딸 | 420쪽 | 1만3천 원
 저자가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했던 신비신학 강의 수업 자료로 하느님과 일치를 목표로 삼는 신비신학 교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신비주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 영성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주의 전통을 찾아가게 한다.

카리브해 음악과의 만남

- 입장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 예매: 1588-7890(www.ticketlink.co.kr) 티켓링크 | 문의: 3216-1185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것의 맛과 깊이를 깨우치기 위해 국제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음악과 만나는 우리 춤'의 하나로, 카리브해 지역의 숨은 매력과 폭넓은 음악세계를 무용을 통해 심도 있게 소개한다. 7월22일(수) 오후 8시·25일(토) 오후 5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티켓링크에서 제휴할인으로 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40% 할인한다(미지참시 차액 지불/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 입장권: 일반 3만 원, 청소년 2만 원
- 예매 및 문의: 2278-5741



순댓국집 모녀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세대간의 갈등과 화해를 담아 냈다. 통기타 시대의 포크송 느낌을 잘 살려 70년대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2007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으로 7월11일(토)~8월16일(일),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